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016년 1차

서울지역 협동조합 리포트

2016년 1-3월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동향

2015년 서울시 협동조합 공공구매 현황

2016. 6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2016년 1/4분기 협동조합 리포트를 발간하며

서울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간단한 분석자료를 공유합니다. 그간 협동조합 통계로는 기획재정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국가통계) 외에는 미미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의 숫자가 가장 많고 공공구매, 지역재생, 사회서비스 위탁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인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아직 통합적 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정책위원회에 서울지역의 협동조합 통계 및 주요 현안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저마다 자기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위원들이 지혜와 시간과 필력을 내어 만든 것입니다.

이번 작업을 시작으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회는 분기별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과 공공구매, 제도개선, 규모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통계 및 자료를 재가공하여 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작더라도 리포트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전해주시시오.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이러한 걸음걸음이 모여 서울에서 현장 지향적 정책이 생산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6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 일동

2016년 1/4분기 서울지역 협동조합 설립 동향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의 설립 현황 데이터를 다운받아 재가공한 것임.

1. 개요

1)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 증가율은 점차적 감소

○ 2016년 1/4분기 현재 서울특별시 기본법 협동조합 수는 2,422개로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 2013년 939개 → 2014년 708개 → 2015년 627개 → 2016년(1-3월) 135개

2) 사회적 협동조합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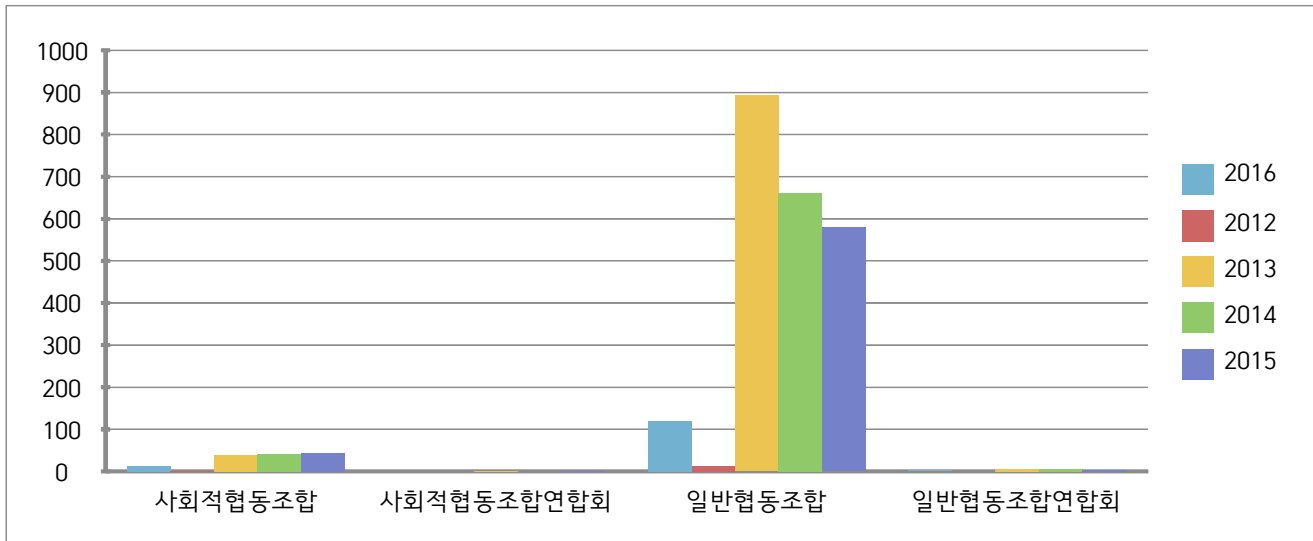
○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의 5.7%를 차지해 비중이 크게 낮으나, 숫자는 매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인가를 둘러싸고 정부가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협동조합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4.7%(서울 123개, 5.4%)였으나,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4.9%를 기록함.

- 서울 : 전체 협동조합 2,422개, 사회적협동조합 139개(5.7%)

- 전국 : 전체 협동조합 9,131개, 사회적협동조합 450개(4.9%)

협동조합 현황(2012.12.1-2016.3.31.)

구분	수리(인가)연도					총 합계
	2016.1/4	2012	2013	2014	2015	
사회적협동조합	14	1	39	41	44	139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1	-	1	2
일반협동조합	119	12	893	661	579	2264
일반협동조합연합회	2	-	6	6	3	17
총 합계	135	13	939	708	627	2422



3) 사업자 유형은 감소, 다중이해관계자 유형과 직원 유형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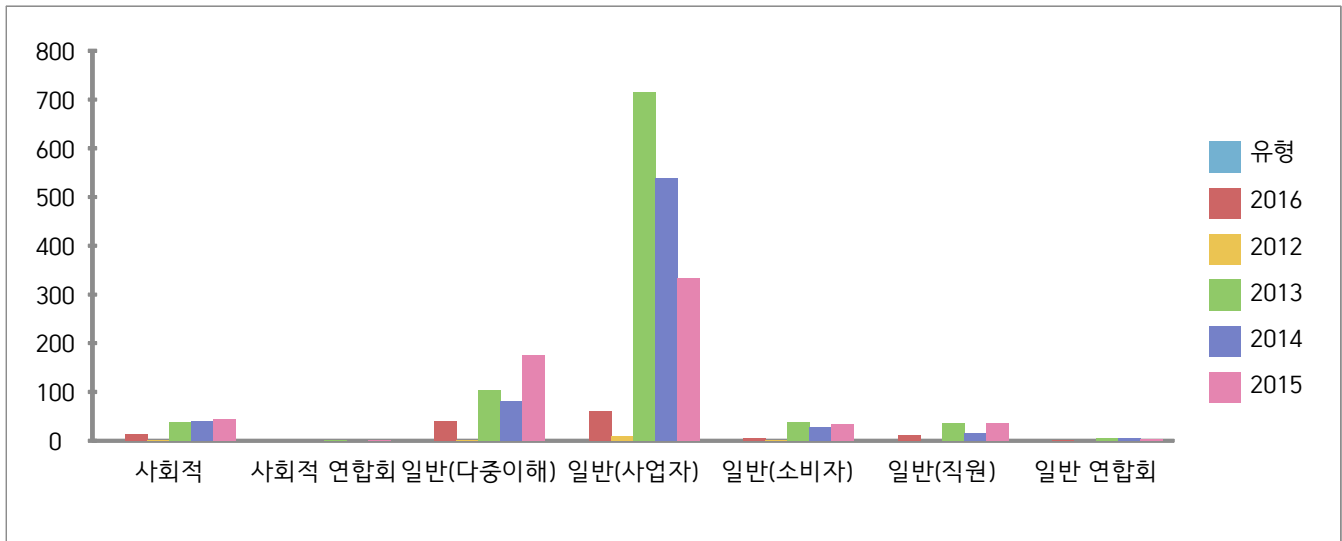
○ 일반협동조합 가운데에는 역시 사업자 협동조합이 2014년까지 가장 많지만 2015년부터 대폭 감소하였음. 대신 다중이해관계자 유형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사업 및 조직의 특성상 다중이해 유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인지, 특성과 상관없이 교육 등을 통해 다중이해가 좀 더 의미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선택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움.

- 사업자 유형 : 2013년 80.2% → 2014년 81.4% → 2015년 57.5% → 2016(1-3월) 50.4%
- 다중이해관계자 유형 : 2013년 11.5% → 2014년 12.1% → 2015년 30.2% → 2016(1-3월) 34.5%
- 소비자 유형 : 2013년 4.3% → 2014년 4.1% → 2015년 5.9% → 2016(1-3월) 5.0%
- 직원 유형 : 2013년 4.0% → 2014년 2.4% → 2015년 6.4% → 2016(1-3월) 10.1%

○ 소비자 유형은 그다지 변동사항이 없지만, 직원 유형은 2015년에 대폭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증가 속에서 직원협동조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사업,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증가의 원인 및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사업자 유형이라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가진 소상공인 중심으로 모인 협동조합과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호출노동자 등 생산자들이 모인 협동조합으로 크게 나뉘어지며, 양자의 정책과제는 다르기 때문에 이후 통계를 세부화 할 필요가 있음.

구분	유형	수리(인가)연도					총합계
		2016	2012	2013	2014	2015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14	1	39	41	44	138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중이해관계자			1		1	2
일반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41	2	103	80	175	399
	사업자	60	9	716	538	333	1647
	소비자	6	1	38	27	34	106
	직원	12		36	16	37	100
	소계	119	12	893	661	579	225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2		6	6	3	17
총 합계		135	13	939	708	627	2422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소강상태,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꾸준히 증가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전국적으로 총 47개이며, 2016년 1/4분기에 3개가 설립되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서울은 2016년 3월 31일 현재 17개이며 2016년에 2개가 만들어졌는데, 전국 추이에 비해 증가 속도는 조금 더딘 것으로 보임.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전국) : 2013년 14개 → 2014년 17개 → 2015년 13개 → 2016년(1-3월) 3개
- 일반협동조합연합회(서울) : 2013년 6개 → 2014년 6개 → 2015년 3개 → 2016년(1-3월) 2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2013년 1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4년 1개(한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15년 2개(중앙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있음.

-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함.

-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며, 한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대전의 중간지원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 중앙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활동사항이 파악되지 않음.

[참고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목록]

지역	협동조합명	수리(인가)일	대표연락처	업종
부산	부산장례협동조합연합회	2016.03.22	051-932-23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서울	전국장재인나눔협동조합연합회	2016.03.17	02-887-987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	가락물수산협동조합연합회	2016.03.10		농업, 어업 및 임업
부산	부산화물유통협동조합연합회	2015.12.23	051-932-2113	운수업
부산	시물레이션스포츠협동조합연합회	2015.10.30	051-683-80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서울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2015.10.23	02-383-085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서울	창조문화 협동조합연합회	2015.09.15	02-3445-50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산	부산비즈니스 협동조합연합회	2015.08.20	051-867-654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산	부경협동조합연합회	2015.06.17	070-7434-6024	도매 및 소매업
충북	중부협동조합연합회	2015.04.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충북	한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	2015.03.10	050-5330-9070	운수업
제주	제주한마음협동조합연합회	2015.03.06	064-743-2486	도매 및 소매업
경기	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	2015.03.04	031-5271-1520	도매 및 소매업
서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협동조합연합회	2015.02.17	02-782-3003	운수업
경남	진주시협동조합연합회	2015.01.13	055-7630-0078	도매 및 소매업
충남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2015.01.06		제조업
부산	부산단체급식협동조합연합회	2014.12.22	051-7546-850	도매 및 소매업
경기	고양시협동조합연합회	2014.12.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서울	파마시콕약사협동조합연합회	2014.11.2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서울	레미콘운송협동조합연합회	2014.11.21	02-583-7616	운수업
전남	남도협동조합연합회	2014.11.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전	한밭협동조합연합회	2014.11.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구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2014.11.07	053-427-21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	나눔과기쁨협동조합연합회	2014.09.29	070-7844-20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전	한국상담협동조합연합회	2014.08.27	042-826-97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서울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2014.08.21	070-4432-11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구	대경협동조합연합회	2014.08.18	053-765-3232	도매 및 소매업
서울	희망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2014.05.15	02-2157-805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천	노래업 협동조합연합회	2014.05.14	032-575-4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광주	요가문화협동조합연합회	2014.05.01	062-953-37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울산	울산태화협동조합연합회	2014.04.24		도매 및 소매업
서울	중앙협동조합연합회	2014.04.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전	대한상담협동조합연합회	2014.01.06	042-477-10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서울	한겨레두레 협동조합연합회	2013.12.20	02-720-95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서울	전국 효마을 협동조합연합회	2013.12.20	070-7603-71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주	두레문화체육 협동조합연합회	2013.12.17		교육 서비스업
서울	한국차양산업협동조합연합회	2013.12.03	02-2026-5828	제조업
서울	안경사협동조합연합회	2013.09.06	02-756-1001	도매 및 소매업
세종	한국화물주차관리협동조합연합회	2013.09.02	044-866-443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광주	내고장특산물 협동조합연합회	2013.08.30	062-373-6177	도매 및 소매업
광주	광주광역시 협동조합연합회	2013.07.26	062-522-0685	도매 및 소매업
부산	전국서점협동조합연합회	2013.06.28		도매 및 소매업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협동조합연합회	2013.06.13	042-252-3186	도매 및 소매업
전남	전국운전강사검정원협동조합연합회	2013.04.23	050-5660-6060	교육 서비스업
서울	전국자전거협동조합연합회	2013.04.02	02-2157-7937	제조업
서울	한국음식사업협동조합연합회	2013.03.19	070-8282-5555	도매 및 소매업
부산	부산광역시협동조합연합회	2013.03.15	051-868-61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자치구별, 업종별 설립 현황

1) 자치구별 설립 현황

○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으로 많이 설립되었음. 5개 구를 합치면 서울시 전체 협동조합의 37.7%에 달함.

	2016(1/4)	2012	2013	2014	2015	합계(%)
강남구	12	1	95	73	68	249(10.3)
서초구	6	1	75	65	46	193(8.0)
마포구	3		63	55	50	171(7.1)
영등포	12	4	66	38	32	152(6.3)
종로구	10	1	60	39	35	145(6.0)
서울시 전체	135	13	939	708	627	2,42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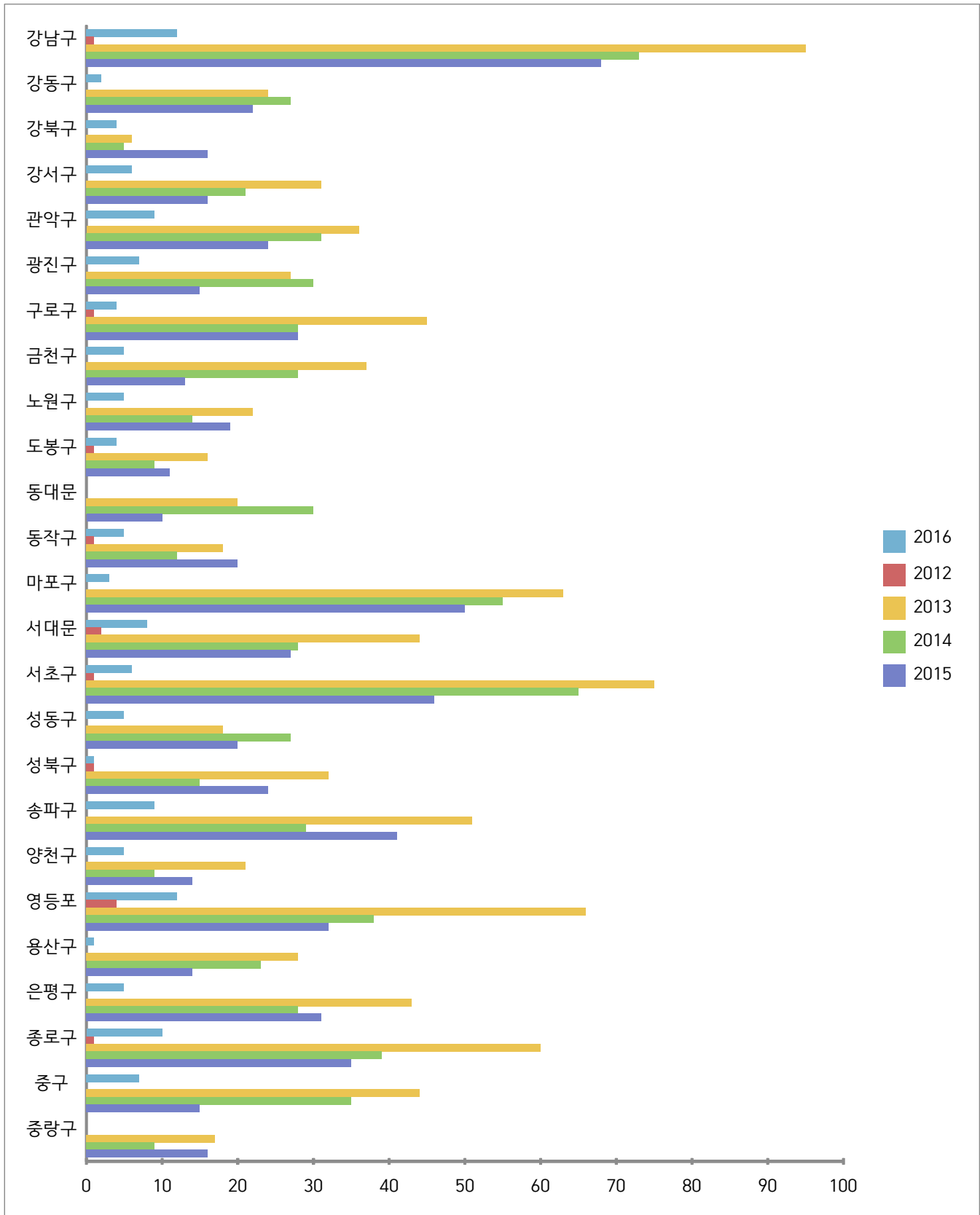
○ 50개 이하 설립 자치구는 강북구-도봉구-중랑구-양천구 순으로, 4개 자치구의 협동조합 비중은 서울시 전체의 6.7%에 불과함.

	2016(1/4)	2012	2013	2014	2015	합계(%)
강북구	4		6	5	16	31(1.3)
도봉구	4	1	16	9	11	41(1.7)
중랑구			17	9	16	42(1.7)
양천구	5		21	9	14	49(2.0)
서울시 전체	135	13	939	708	627	2,422(100.0)

○ 협동조합은 주소지의 비중보다 사업범위(해외/전국/광역/기초)가 중요하고, 주소지와 실제 사업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음. 하지만 서울지역은 자치구별로 지원시스템과 당사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소재 협동조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자치구별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강북구는 협동조합이 매우 적지만 사업범위가 대부분 기초지역으로서 자치구 지원시스템과 네트워크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강남구는 숫자는 많지만 전국, 광역 기반 사업자 협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 단위 지원시스템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가 효과적일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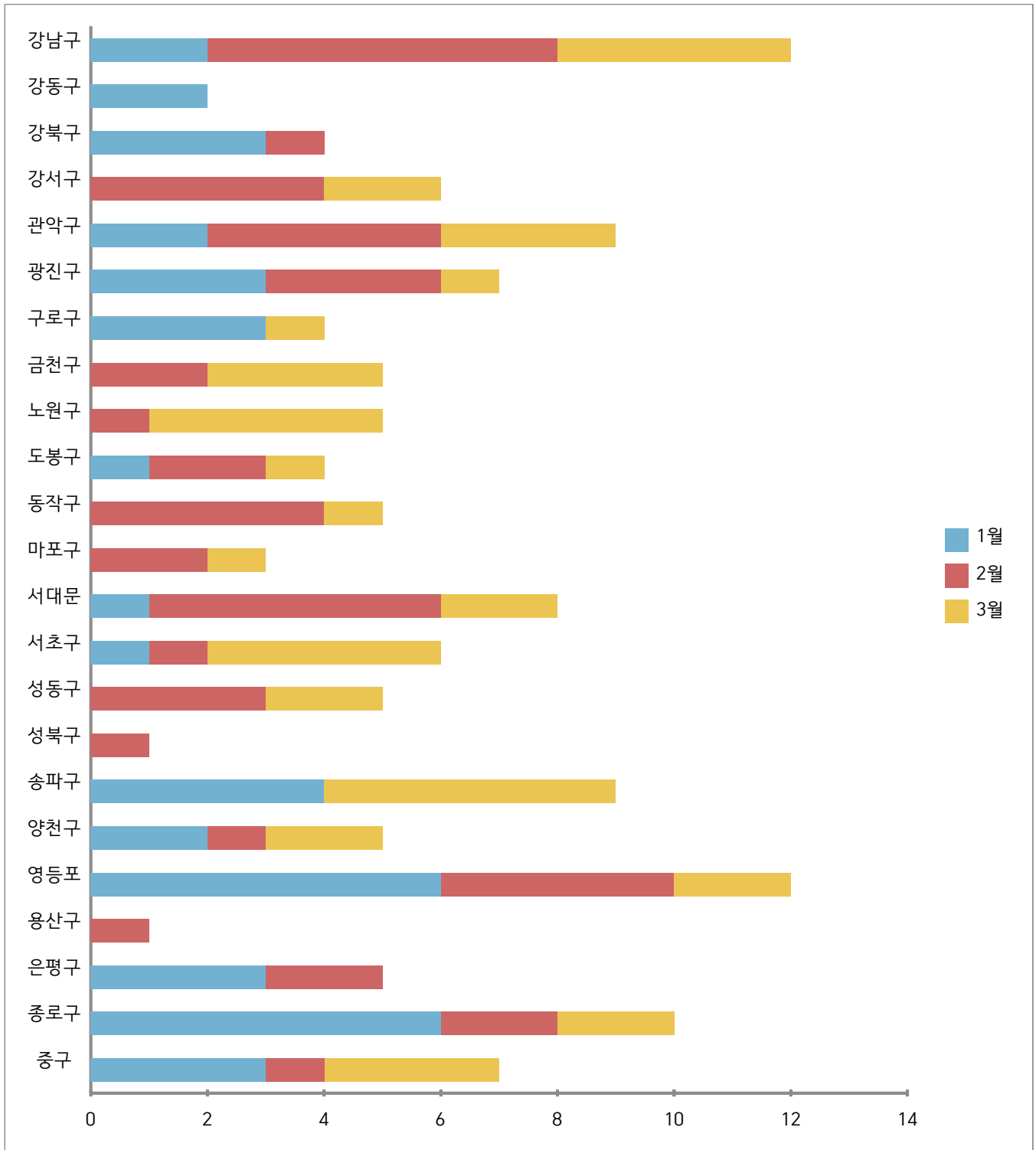
자치구별 설립현황(2012-2016.3.31.)

행정구	수리(인가)연도					
	2016	2012	2013	2014	2015	총 합계
강남구	12	1	95	73	68	249
강동구	2		24	27	22	75
강북구	4		6	5	16	31
강서구	6		31	21	16	74
관악구	9		36	31	24	100
광진구	7		27	30	15	79
구로구	4	1	45	28	28	106
금천구	5		37	28	13	83
노원구	5		22	14	19	60
도봉구	4	1	16	9	11	41
동대문			20	30	10	60
동작구	5	1	18	12	20	56
마포구	3		63	55	50	171
서대문	8	2	44	28	27	109
서초구	6	1	75	65	46	193
성동구	5		18	27	20	70
성북구	1	1	32	15	24	73
송파구	9		51	29	41	130
양천구	5		21	9	14	49
영등포	12	4	66	38	32	152
용산구	1		28	23	14	66
은평구	5		43	28	31	107
종로구	10	1	60	39	35	145
중구	7		44	35	15	101
중랑구			17	9	16	42
총 합계	135	13	939	708	627	2422



자치구별 설립 현황(2016년 월별 통계)

개수 : 협동조합명	수리월			
행정구	01	02	03	총 합계
강남구	2	6	4	12
강동구	2			2
강북구	3	1		4
강서구		4	2	6
관악구	2	4	3	9
광진구	3	3	1	7
구로구	3		1	4
금천구		2	3	5
노원구		1	4	5
도봉구	1	2	1	4
동작구		4	1	5
마포구		2	1	3
서대문	1	5	2	8
서초구	1	1	4	6
성동구		3	2	5
성북구		1		1
송파구	4		5	9
양천구	2	1	2	5
영등포	6	4	2	12
용산구		1		1
은평구	3	2		5
종로구	6	2	2	10
중구	3	1	3	7
총 합계	42	50	43	135



2) 업종별 설립 현황

○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579개), 교육서비스업(440개),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개) 순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70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48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8개) 순임.

○ 도매 및 소매업은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어, 2015년 설립 개수는 2013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음. 반면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커다란 편차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참고로, 운수업은 숫자는 적으나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율 자체도 늘어났는데, 이는 국토부의 전세버스협동조합 육성사업(국토부가 미등록 전세버스의 양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권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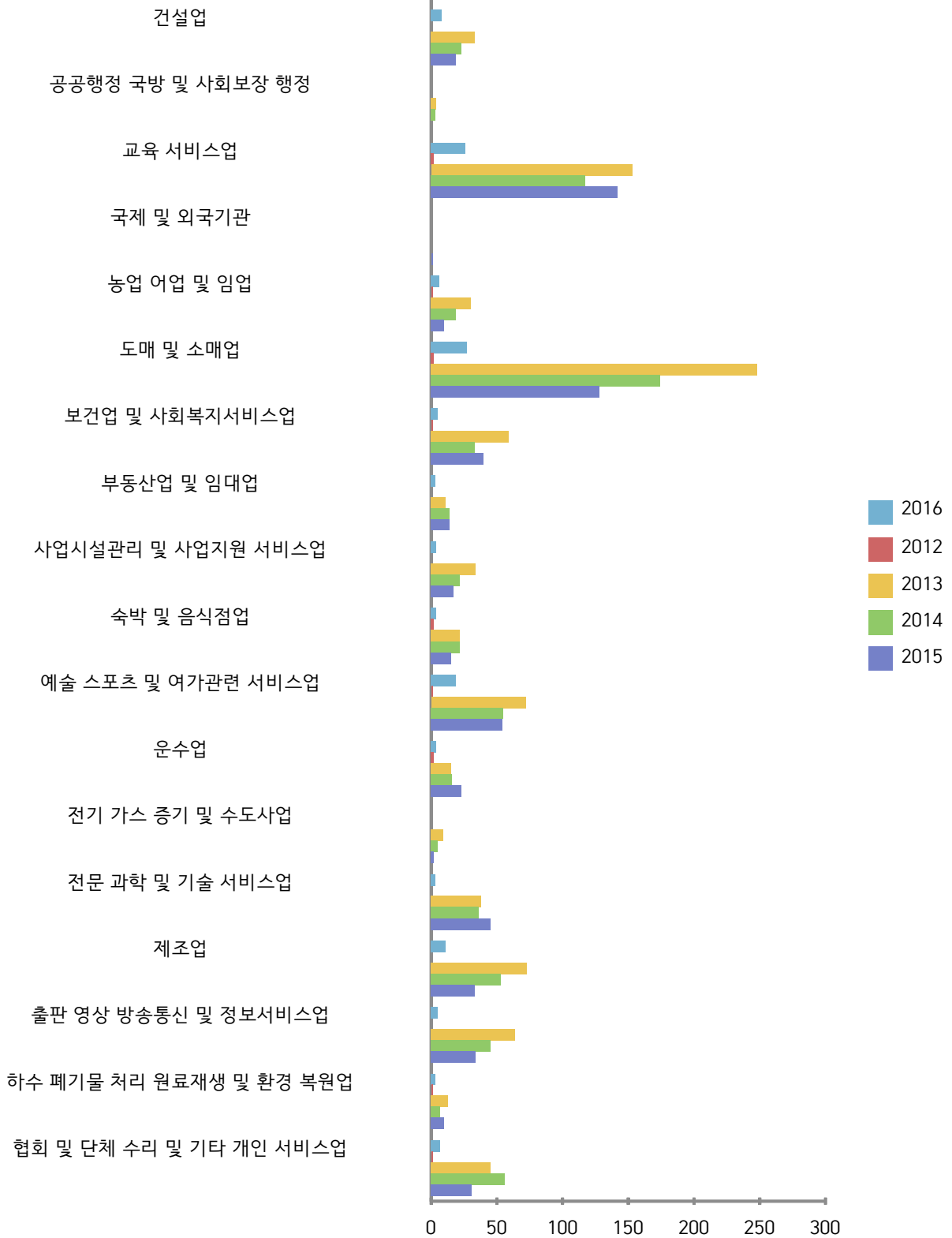
○ 업종별 추이를 보면, 소상공인 중심의 도소매업은 증가율이 저하되는 반면 경력단절여성, 청년, 프리랜서, 소생산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16년 1/4분기에는 도소매업 협동조합이 27개 설립된 반면, 교육서비스업은 26개, 문화예술분야는 19개가 설립되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업종별-조합원 유형별로 교차해보아도 이러한 특징은 뚜렷이 드러남. 도소매업은 절대다수가 사업자 유형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원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가능성이 크며,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다중이해관계자와 직원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음. 문화예술분야는 사업자 유형이 다수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등록이 없는 소생산자들로 구성되었을 확률이 높음.

연도별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

업종	수리(인가)연도					
	2016 (1/4)	2012	2013	2014	2015	총 합계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6	8	9	33
건설업	8		33	23	19	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3		7
교육 서비스업	26	2	153	117	142	440
국제 및 외국기관					1	1
농업, 어업 및 임업	6	1	30	19	10	66
도매 및 소매업	27	2	248	174	128	57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1	59	33	40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3		11	14	14	4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		34	22	17	77
숙박 및 음식점업	4	2	22	22	15	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1	72	55	54	201
운수업	4	2	15	16	23	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	5	2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38	36	45	122
제조업	11		73	53	33	1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64	45	34	148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	1	13	7	10	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1	45	56	31	140
총 합계	135	13	939	708	627	242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업종별-조합원 유형별 설립 현황(2016.3.31. 현재)

업종	다중이해 관계자	사업자	소비자	직원	*연합회	총 합계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4	21	7	1		33
건설업	19	57	3	4		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				7
교육 서비스업	134	272	7	27		440
국제 및 외국기관	1					1
농업, 어업 및 임업	15	50			1	66
도매 및 소매업	99	417	44	17	2	57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2	55	11	9	1	1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27	6	1		4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0	44	5	5	3	77
숙박 및 음식점업	16	38	3	8		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	149	6	5		201
운수업	20	32	1	5	2	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5	1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92	2	4		122
제조업	19	140	2	7	2	1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	110	4	2	2	14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4	26	2	2		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	104	2	4	4	140
총 합계	542	1656	106	101	17	2422

2015년 서울시 공공구매(협동조합) 현황

※ 아래 현황은 서울시 본청, 자치구, 부설기관 및 공기업의 2015년 공공구매 실적 전체를 재정리한 것임. 다만 취합방식과 기간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함. 나아가 연도별 추이도 살펴보고 싶었으나 2014년은 2015년과 실적 취합형식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웠으므로 추후 과제로 넘김(원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지원단).

1. 개요

1) 협동조합은 2015년 서울시 전체 공공구매의 0.26%를 차지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 공공구매 총액 약 4조원에서 지역형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합친 협동조합 대상 구매액은 10,637,708,208원으로 0.26%를 차지함. 물론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자활기업 가운데에도 협동조합 법인격을 가진 곳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현행 통계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유형별 구분은 다양한 기업 특징 가운데 핵심 특징을 제시한 것으로서 행정상의 구분을 따라 0.26%로 보아도 지장 없다고 생각됨.

기업 유형별 구분에 따른 서울시 공공구매 현황(2015)

유형별 구분	총금액(원)	점유율
대기업	916,301,190,286	22.88%
중기업	737,962,289,064	18.43%
소기업	704,928,873,104	17.60%
비영리기업	493,575,908,141	12.33%
소상공인	415,027,072,762	10.36%
가족친화기업	372,001,703,189	9.29%
여성기업	252,473,974,851	6.30%
사회적기업	37,506,900,655	0.94%
장애인기업	28,580,827,422	0.71%
중증장애인생산품	22,014,709,118	0.55%
협동조합(지역형)	9,264,516,708	0.23%
예비사회적기업	7,480,437,369	0.19%
사회적경제우수기업	3,699,234,460	0.09%
사회적협동조합	1,373,191,500	0.03%
외국투자기업	1,068,906,171	0.03%
마을기업	1,009,047,081	0.03%
자활기업	303,316,768	0.01%
총합계	4,004,572,098,649	100.00%

○ 위의 표에서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역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경제우수기업)만 추출해 구매부서 순위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음. 서울시 전체에서 SH공사가 가장 조달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서울시 본청이며, 자치구에서는 은평구가 가장 비중이 높음.

구매부서	금액	점유율	누계점유율
SH공사	5,816,913,860	9.64%	9.64%
서울특별시	3,762,794,142	6.24%	15.88%
상수도사업본부	3,394,889,060	5.63%	21.50%
서울메트로	3,094,790,897	5.13%	26.63%
시설관리공단	2,887,887,803	4.79%	31.42%
은평구	2,697,791,861	4.47%	35.89%
성북구	2,513,857,283	4.17%	40.06%
금천구	2,091,369,810	3.47%	43.53%
서울여성가족재단	2,065,782,171	3.42%	46.95%
영등포구	2,032,383,543	3.37%	50.32%
동대문구	1,660,782,332	2.75%	53.07%
강서구	1,630,355,280	2.70%	55.77%
송파구	1,596,569,884	2.65%	58.42%
성동구	1,475,348,530	2.45%	60.86%
강동구	1,419,211,280	2.35%	63.22%
서대문구	1,329,840,560	2.20%	65.42%
도시안전실-산하사업소	1,280,350,070	2.12%	67.54%
노원구	1,214,201,386	2.01%	69.56%
농수산식품공사	1,184,270,830	1.96%	71.52%
마포구	1,134,706,482	1.88%	73.40%
광진구	1,105,543,330	1.83%	75.23%
동작구	913,875,640	1.51%	76.75%
소방재난본부	887,163,840	1.47%	78.22%
강남구	883,591,320	1.46%	79.68%
구로구	875,132,010	1.45%	81.13%
종로구	867,364,170	1.44%	82.57%
서울시립대학교	852,955,320	1.41%	83.98%
강북구	803,971,319	1.33%	85.32%
도시기반시설본부	766,378,996	1.27%	86.59%
서울산업진흥원	758,263,519	1.26%	87.84%
관악구	674,446,170	1.12%	88.96%

양천구	624,444,940	1.03%	90.00%
서울문화재단	587,483,114	0.97%	90.97%
도시철도공사	544,390,010	0.90%	91.87%
디자인재단	530,930,181	0.88%	92.75%
중랑구	500,034,640	0.83%	93.58%
용산구	433,881,470	0.72%	94.30%
문화관광디자인본부-산하사업소	405,159,550	0.67%	94.97%
도봉구	372,119,090	0.62%	95.59%
중구	302,904,940	0.50%	96.09%
서울신용보증재단	284,325,270	0.47%	96.56%
서울의료원	259,773,530	0.43%	96.99%
서초구	235,922,900	0.39%	97.38%
서울역사박물관	216,119,020	0.36%	97.74%
서울복지재단	201,252,170	0.33%	98.07%
복지건강실-산하사업소	187,804,750	0.31%	98.39%
인재개발원	183,762,370	0.30%	98.69%
푸른도시국	159,013,534	0.26%	98.95%
(사)자원봉사센터	133,738,670	0.22%	99.18%
한강사업본부	110,648,490	0.18%	99.36%
세종문화회관	108,844,596	0.18%	99.54%
서울연구원	98,690,600	0.16%	99.70%
교통방송	52,744,050	0.09%	99.79%
의회사무처	44,200,400	0.07%	99.86%
시립미술관	35,175,840	0.06%	99.92%
서울장학재단	18,415,100	0.03%	99.95%
경제진흥실-산하사업소	11,241,430	0.02%	99.97%
서울시립교향악단	4,511,200	0.01%	99.98%
여성가족정책실-산하사업소	3,872,600	0.01%	99.98%
행정국-산하사업소	2,680,000	0.00%	99.99%
기술심사담당관-산하사업소	2,385,600	0.00%	99.99%
기후환경본부-산하사업소	2,118,350	0.00%	100.00%
정보기획단-산하사업소	1,956,670	0.00%	100.00%
총합계	60,333,327,773	100.00%	

2) 공공구매 참여 협동조합 299개 가운데 상위 11개 조합이 총구매의 절반(49.73%)를 차지

○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보면 공공구매 편차가 매우 큼. 공공구매에 참여한 조합은 총 299개소이지만 상위 11개 협동조합이 총금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상위 11개 협동조합 가운데 절반 가까운 5개 조합은 기본법 협동조합이 아니라 개별법, 곧 1961년에 제정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¹⁾에 의거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임. 상위 11개에서 개별법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기본법 협동조합은 6개, 점유율 26.4%로 나타남.

299개 공공구매 참여조합 전체를 놓고 보면 개별법 협동조합은 모두 32개(10.4%)인데 점유율은 3배에 가까운 27.5%에 달함. 개별법 조합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가장 많지만 다음으로 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수협, 소비자생협 등이 포함되어 있음.

상위 11개 협동조합의 공공구매 점유율

	협동조합명	조합 개요	금액	점유율	누계점유율	기타
1	경기00사업협동조합	2007년 설립 레미콘산업	937,798,860	8.82%	8.82%	개별법
2	00사회적협동조합	2013년 설립 식자재분야	644,501,500	6.06%	14.87%	기본법
3	000협동조합	2013년 설립 도소매업	622,684,620	5.85%	20.73%	기본법
4	00인쇄광고협동조합	2014년 설립 인쇄출판	544,802,230	5.12%	25.85%	기본법
5	한국00협동조합	1962년 설립 전기산업	505,310,030	4.75%	30.60%	개별법
6	00협동조합	2014년 설립 제조,건설,도소매	494,864,420	4.65%	35.25%	기본법
7	한국00공업협동조합	2004년 설립 펌프산업	416,515,820	3.92%	39.17%	개별법
8	한국00협동조합	1958년 설립 출판업	344,118,980	3.23%	42.40%	개별법
9	한국00공업협동조합	1979년 설립 석재분야	280,588,410	2.64%	45.04%	개별법
10	0000협동조합	2014년 설립 도소매업	275,862,940	2.59%	47.63%	기본법
11	0000협동조합	2013년 설립 농산물,도시농업	223,288,184	2.10%	49.73%	기본법

1) 1954년 이후 생필품을 생산하는 광공업분야에서 주로 원조자금에 의하여 중소기업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친목 협의체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로서 각종 협회 또는 공업조합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1956년 7월 중소기업중앙단체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61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시행되었고 1962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62년 12월 말까지 지방조합 75개, 전국조합 33개, 연합회 9개의 기본조직이 구성되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1319&cid=46630&categoryId=46630>) 2015년 2월에는 법을 개정하여, ①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②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5년 협동조합 대상 공공구매의 시사점

- 전체 숫자에 비해 협동조합보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비율이 높은 것은 협동조합의 업력이 짧아 상대적으로 공급 가능한 상품이 부족하며 공공시장 개척 경험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서울시의 협동조합 공공구매 실적에는 개별법 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이 혼재되어 있는데 향후 분리해 홍보, 분석해야 기본법 협동조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 공공조달 활성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음. 개별법 특히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이전에도 전문기능 등을 바탕으로 계속 공공조달에 참여해온 기업이 많고 조달 규모도 크기 때문임.
- 공공구매 실적 상위 22개 협동조합 가운데 기본법 조합을 살펴보면, 사회적협동조합(식자재), 자활기업(집수리), 바우처사업(장애인활동지원) 외에 공간 위탁 등 위탁사업이 금액이 크며, 그밖에는 백만원 단위의 소액거래가 다수를 차지함.
 -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기본법 협동조합은 주로 소속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적극적 구매 의사와 조합의 적극적 마케팅이 결합한 결과일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홈페이지 없는 기본법 협동조합들도 많았음. 이는 소속 자치구 중심의 소액 영업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간단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협동조합 공개와 마케팅이 필요함. 지역 기반 협동조합이 자체 홈페이지 운영 여력이 부족하거나 지역내 소액거래이므로 아직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홈페이지 공동운영 및 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함.

상위 22개 협동조합 가운데 기본법 협동조합 공공구매 현황

조합명	수리(인가)일	유형	공공구매물품 및 기타 특징
00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2013.1	-	사회적기업, 식자재 공동구매 등
000협동조합	2013.5	사업자	도소매
000인쇄광고협동조합	2014.4	사업자	인쇄출판
00협동조합	2014.12	사업자	도소매업
0000협동조합	2014.1	사업자	청소물품 도소매. 주로 소재지 구청에서 구입
0000협동조합	2013.3	사업자	농산물`도시텃밭`가꾸기. 주로 소재지 구청과 일부 다른 자치구 구청에서 구입.
000사회적협동조합	2014.2	-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바우처). 주로 소재지 자치구에서 구매
00인쇄협동조합	2014.10	사업자	홍보물 제작, 현수막, 프린터 토너 등 소액거래가 다수
서울000협동조합	2014.8	다중이해	동대문구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수탁
서울00협동조합	2013.6	사업자	도서출판 및 판매. 시민청 서울책방 운영, 소재지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교수자료, 도서관 도서 구입 등
00성북사회적협동조합	2014.10	-	소재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운영
00전산협동조합	2013.10	사업자	전산소모품 판매 및 유지보수. 대부분 소액 거래
00건축협동조합	2013.8	사업자	건축`유지보수. 사랑의집수리사업 등
000협동조합	2014.5	사업자	인쇄출판. 대부분 소재지 구청에서 구매. 견인차량 스티커 구매 외에는 모두 소액거래
00전산협동조합	2013.8	사업자	전산소모품 유통업 및 장비 유지보수.
000서비스협동조합	2014.11	다중이해	교육서비스업. 은평구 평생학습장 위탁운영

발 간 인 : 임정빈(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대표)

발간일시 : 2016년 6월 10일

편집위원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정책위원회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정책위원장)

강민수(콤피즈협동조합. 정책위원)

박상선(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정책위원)

우은주(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정책위원)

홍경수(협동조합 컨설턴트. 정책위원)

남윤환(정책위원회 간사)